#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 -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

## The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 – The Effects of Parenting Related Variables on Child Self-Esteem –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최 형 성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
*Full-Time Lecturer* : Hyung Sung Choe

목 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perceived social support, parenting behavior, and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and child' self-esteem, including a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were 404 Korean child-mother dyads living in Seoul, Kore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a significant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hild'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ncluding Warmth-Acceptance, Rejection-Restriction, and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In the Warmth-Acceptance model,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related to child self-esteem through Warmth-Acceptance. In the Rejection-Restriction model,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related to child self-esteem both directly and through Rejection-Restriction. Child's temperament was also related to Rejection-Restriction directly. In the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model,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related to child self-esteem directly, not through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Child's temperament, also, was related to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directly.

**주제어(Key Words):**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자존감(self-esteem),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기질(temperament)

Corresponding Author : Choe, Hyung S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617-736, San 1-1, Gwaebop-dong, Sasang-gu, Busan. Korea Tel(Fax): +82-51-999-5302 E-mail: hyungsung@silla.ac.kr

# I. 서 론

아동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심리 ·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Bogenschneider, Small, & Tsay, 1977). 심리 · 사회적 적응 중 하나인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Rogenberg, 1979)에 관한 것으로,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Mussem, Conger, & Kagan, 1980).

부모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지난 수 십 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자들은 양육효능감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양육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2).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양육행동의 개인차는 양육효능감 차이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2003).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되는 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Shumow & Lomax, 2002). 최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자들은 양육효능감의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어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Webster-Stratton, 2000).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oleman과 Karraker(1997)는 우울이나, 가난,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원과 같은 변인들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Teti와 Gelfand(1991)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연구한 Leerkes와 Crokenberg(2002) 는 스트레스를 받는 과업 수행 동안 양육행동을 예측케 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Machida, Talyor와 Kim(2002)는 스트레스 사건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가정에서의 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Cutrona와 Troutman(1986)은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Donovan과 Leavitt(1985)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사회적인 지원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예측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가 보내는 신호를 잘 이해하고 자녀 모니터링을 잘하며, 긍정적, 반응적, 비처벌적,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식 습득 노력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노력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Bogenschnieder *et al.*, 1997; Coleman & Karraker, 1997; Desjardin, 2003; Eccles & Harold, 1996; Gondoli & Silverberg, 1997; Hoover-Dempsey, Bassler, & Brissie, 1992;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우 아동을 학대하고, 통제적, 강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수동적, 소극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양육기술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Bogenschnieder *et al.*, 1997; Coleman & Karraker, 1997; Desjardin, 2003;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Teti & Gelfand, 1991;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아동의 높은 자존감이 부모의 온정적이고 긍정적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양육행동과 관련됨을 보고한다(Coopersmith, 1967; Gecas & Schwalbe,1986; Mondell & Tyler,1981; Rogenberg, 1965). 그러나 양육행동, 특히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적지 않은 불일치를 보고하는 측면이 있다(박영애,정옥분, 1996)는 점에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해석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 더구나 아동의 자아효능감의 예측에 기여하는 것은 양육행동이 아니라 양육효능감이었다는 연구 결과(Ardelt & Eccles, 2001)에 의해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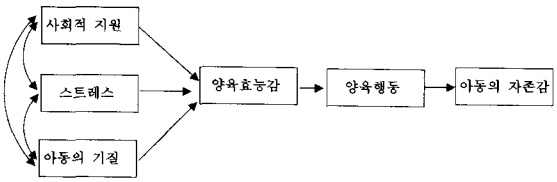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l, 1996; Kotchick, Forehand, Brody, Armistead, Simon, & Clark, 1997; 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 Scheel & Rieckmann, 1988), 그 수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Cutrona & Troutman, 1986 ;

Johnston & Mash, 1989 ; Teti & Gelfand, 1991), 두 변인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Levi-Shiff *et al.*, 1998)도 있어 두 변인 간의 관계 해석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아동의 기질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Cutrona & Troutman, 1986; Mash & Johnston, 1983; Teti & Gelfand, 199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 특히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그리고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림 1〉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를 설정한 기본 모형이다.




〈그림1〉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아동의 자존감 모형

아직까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국 · 내외적으로 매우 드문 현실이다. 문헌 연구를 통해 〈그림 1〉과 같은 모형 구축은 가능한 일이다. 이에 관한 연구가 드문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변인들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다.

현재까지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고(Desjardin, 2003) 아동 양육의 일차 책임자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점(Mash & Johnston, 1983; Elder, Eccles, Ardelt, & Lord, 1995)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고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은 아동의 자존감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Ⅱ.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 · 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 404쌍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11세(47%)와 12세(36%)가 많았으며, 여아(53%)가 남아(47%)보다 많았다. 형제 수는 2명(69%), 출생순위는 첫째(5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은 36세에서 40세 사이(55%), 학력은 고졸(59%)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전업주부(55%)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수입은 200만원에서 249만원사이(23%)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50만원에서 299만원사이(17%)가 그 다음 순위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7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자존감

아동이 평가하는 아동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2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총체적인 자아존중감', '사회적인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

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등 4개 하위 요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32점에서 1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 중 '어머니는 나에게'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8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등 3 개 차원,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영애(1995)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차원마다 요인 부하량이 높은 12문항씩을 선택함으로써 각 차원마다 동일한 문항 수로 구성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차원의 총 점수는 12점에서 48점까지이며, 점수는 각 차원별로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역코딩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점수가 높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각 차원의 신뢰도는 .86, .80, .68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25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등 2개의 요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기질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숙(1994)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질문 문항의 첫 부분인 '나는'을 '내 아이는'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4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일반적 활동 수준', '융통-경직성',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등 6개의 기질 차원, 34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수는 34점에서 136점까지이다. 기질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활동 수준, 융통-경직성의 점수가 낮을수록,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는 기질에 대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하도록 일반적 활동수준과 융통-경직성 차원에 해당되는 문항의 응답을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현희(1994)가 사용한 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한 후 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후 20문항으로 구성되고 '건강문제', '남편의 직업전환',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갈등' 등 5개 하위 요인, 4점 척도로 재구성되었다. 총 점수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 500명과 그 어머니들을 쌍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소정의 선물과 함께 배부되었으며, 456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부실한 응답을 한 52쌍을 제외한 404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과 변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문항양호도 검사 및 공통요인분석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요인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연구문제 2의 예비평가를 위하여 왜도(또는 편포도, skewness)와 첨도(또는 용도, kurtosis)를 산출하였고, 본 평가를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각 변인들의 특성을

〈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과 자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404)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2.25 | .51 |
|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1.08 | .52 |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 .97 | .41 |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 3.73 | .44 |
| 어머니의 스트레스 | 2.04 | .68 |
|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 3.71 | .59 |
| 아동의 기질 | 2.77 | .25 |
| 아동의 자존감 | 3.55 | .49 |

* 4점 척도 – 양육행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5점 척도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아동의 자존감

〈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과 자존감과의 상관관계

(N=404)

|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 | | | | | | | |
| 2.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 -.31*** | | | | | | | |
| 3.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 .02 | .12* | | | | | | |
|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 .32*** | -.15** | -.14** | | | | | |
| 5. 어머니의 스트레스 | -.13** | .06 | .04 | -.20*** | | | | |
| 6.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 .17*** | -.06 | -.08 | .66*** | -.22 *** | | | |
| 7. 아동의 기질 | .06 | -.16** | -.21*** | .35*** | .36*** | -.17*** | | |
| 8. 아동의 자존감 | .34*** | -.12* | -.08 | 13* | -.09 | .08 | .10 | |

*$p$<.05 **$p$<.01 ***$p$<.001

파악하고자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단 양육행동은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등 차원론적 접근방법을 택하였으므로, 차원에 따라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이러한 특성들을 기초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r=.34, $p$<.001, r=.13, $p$<.05), 어머니의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낮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r=-.12,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r=.66, r=.35, r=.32 $p$<.001, r=.13,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20 $p$<.001, r=-.15, r=-.14,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은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r=-.16, $p$<.01, r=-.21, r=-.17, $p$<.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정적 상관(r=.36,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r=.17, $p$<.001),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r=-.22,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낮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r=-.13,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자존감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행동의 차원론적 접근방법을 택하였으므로, 상관분석과 마찬가지로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도 차원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개의 변인들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수는 404표본으로 안정된 결과를 줄 수 있는 표본수이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해도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을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중요한 합치도 지수인 카이스퀘어($\chi^2$), GFI, AGFI, NFI, NNFI, RMR 값을 각 양육행동 차원에 따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기본 양육행동 모형과 본 연구자료는 대체로 잘 부합되는 모형인

〈표 3〉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양육행동 기본 모형에서 나타난 합치도 지수

| | $\chi^2$ | df | p | Q | GFI | AGFI | NFI | NNFI | RMR |
|---|---|---|---|---|---|---|---|---|---|
| 온정 · 수용 | 8.98 | 7 | .254 | 1.28 | .993 | .978 | .979 | .990 | .008 |
| 거부 · 제재 | 15.87 | 7 | .026 | 2.27 | .987 | .962 | .955 | .944 | .011 |
| 허용 · 방임 | 22.00 | 7 | .003 | 3.14 | .983 | .948 | .938 | .906 | .011 |

〈표 4〉 수정지표

| 양육행동 | 경로 | M.I. | Par change |
|---|---|---|---|
| 거부 · 제재 | 아동의 기질 ⟶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 4.79 | -.224 |
| | 양육 효능감 ⟶ 아동의 자존감 | 5.16 | .125 |
| 허용 · 방임 | 아동의 기질 ⟶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 10.71 | -.264 |
| | 양육 효능감 ⟶ 아동의 자존감 | 5.75 | .132 |

〈표 5〉 수정된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의 합치도 지수

| | $\chi^2$ | df | p | Q | GFI | AGFI | NFI | NNFI | RMR |
|---|---|---|---|---|---|---|---|---|---|
| 거부 · 제재 | | | | | | | | | |
| 수정모형 Ⅰ | 10.37 | 6 | .110 | 1.72 | .992 | .971 | .971 | .968 | .010 |
| 수정모형 Ⅱ | 5.06 | 5 | .408 | 1.01 | .996 | .983 | .986 | .999 | .006 |
| 허용 · 방임 | | | | | | | | | |
| 수정모형 Ⅰ | 9.61 | 6 | .142 | 1.60 | .992 | .973 | .973 | .974 | .010 |
| 수정모형 Ⅱ | 3.70 | 5 | .594 | .74 | .997 | .987 | .990 | 1.011 | .005 |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은 모든 합치도 지수에서 만족할 만한 값을 산출하였고 수정지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은 카이스퀘어($\chi^2$)와 RMR 값에서 다소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산출한 바, 수정지표에 의해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표 4).

따라서 아동의 기질이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첨가하여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의 수정모형 Ⅰ, 그리고 수정 모형 Ⅰ에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첨가하여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의 수정모형 Ⅱ를 구축하였다.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기질이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첨가하여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의 수정 모형 Ⅰ, 그리고 수정 모형 Ⅰ에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첨가하여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의 수정모형 Ⅱ를 구축하였다. 〈표 5〉에 각 수정모형의 합치도 지수인 카이스퀘어($\chi^2$), GFI, AGFI, NFI, NNFI, RMR 값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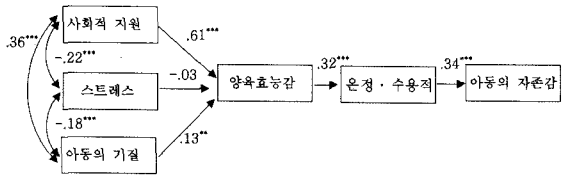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모두 수정모형 Ⅰ을 통해 카이스퀘어($\chi^2$)와 RMR 값이 증가되어 중요합치도 지수 모두에서 만족할만한 값들이 산출되었다. 두 양육행동 모두 수정모형 Ⅱ에서 모든 합치도 지수의 값들이 약간씩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모두 기본 모형에 아동의 기질과 각 양육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첨가만으로도 그 모형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양육효능감에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첨가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모형과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의 수정모형 Ⅱ,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의 수정모형 Ⅱ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의 경우,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은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효능감은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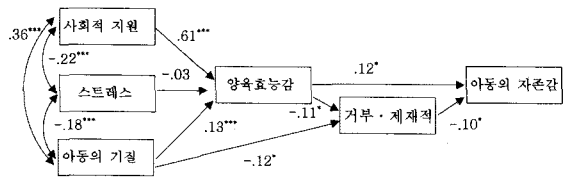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의 경우,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효능감은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달리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기질이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기질은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 나타나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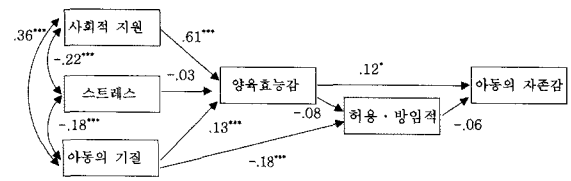

** p<.01 *** p<.001

〈그림 2〉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자존감 기본 모형: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p<.01 *** p<.001

〈그림 3〉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자존감 수정 모형Ⅱ: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p<.01 *** p<.001

〈그림 4〉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자존감 수정 모형Ⅱ: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간접적인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서 보듯이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모형과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의 수정모형Ⅱ,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의 수정모형Ⅱ 모두 양육효능감이 독립변인들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각 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SMC)를 살펴본 결과,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모형은 양육효능감을 포함한 변인들의 설명력이 11.6%,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수정 모형Ⅱ는 2.7%,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수정 모형Ⅱ는 2.1%에 이르고 있음이 나타났다.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과 양육효능감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기질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높은 양육효능감이 비처벌적, 온정적, 수용적 양육행동과 관련되고 낮은 양육효능감이 통제적, 강압적, 수동적 양육행동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Bogenschnieder *et al.*, 1997; Coleman & Karraker, 1997; Desjardin, 2003;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양육효능감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양육효능감의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양육효능감 신장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행동 발달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Brookman-Frazee, 2004; Dempsey & Dunst, 2004; Desjardin, 2003; Gross, Fogg, & Truker, 1995; Martin & Sanders, 2003).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에 관한 지원이 양육효능감 향상에 기여한다는 Cutrona와 Troutman(1986), Teti와 Gelfand(1991)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정적 상관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순한 기질이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된다는 Cutrona와 Troutman(1986), Mash와 Johnston(1983), Teti와 Gelfand(1991)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의 부적 상관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변인간의 의미있는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Dumka와 동료들(1996), Kotchick와 동료들(1997), Levy-Shiff와 동료들(1998), Scheel과 Reickmann(1998)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원과 정적 상관을,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순한 기질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행동이나 방임, 명령이나 비난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관련되고(Crinic & Greenberg, 1990; Cri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Leerkes & Crokenberg, 2002; Suchman & Luthar, 2001; Webster-Stratton, 1988), 사회적 지원이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며(Crinic *et al.*, 1983 ; Eiden, Teti, & Corns, 1995; Unger & Wandersman, 1988), 순한 기질의 아동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Belsky, 198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수용 및 애정, 온정이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훈육과 엄한 교육이 아동의 자존감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Coopersmith, 1967; Gegas & Schwalbe, 1986; Rogenberg, 196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아동의 자존감이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존감과 거의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영애, 정옥분, 1996; 이 숙, 최정미, 2003; Young, 1993, 박영애, 정옥분, 1996 -재인용)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가 아동의 자존감과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나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Anderson & Hughes, 1989; Litovsky & Dusek, 1985)의 결과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연구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연구문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더욱 수월하게 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본 모형으로 설정한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모형 모두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외에도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의 경우는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수정 모형에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그리고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첨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는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수정 모형과 유사하지만,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 나타나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기질이나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Coleman과 Karraker(1997), Cutrona와 Troutman(1986), Machida와 동 료 (2002), Teti와 Gelfand(1991), Donovan과 Leavitt(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Leerkes와 Crokenberg(2002)와 Machida와 동료(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스트레스가 선행연구들이 측정한 스트레스와 측정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는 양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활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기에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아동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견해(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Shumow & Lomax, 200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Coleman과 Karraker(1997)는 양육효능감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으로 만드는 능력과 관련되고,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예측케하는 강력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는데,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보다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아효능감의 예측에 기여하는 것은 양육행동이 아니라 양육효능감이라는 Ardelt와 Eccles(200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에 양육효능감을 첨가하여 연구함으로써 둘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들(박영애, 정옥분, 1996; 이숙, 최정미, 2003; Anderson &

Hughes, 1989; Coopersmith, 1967; Litovsky & Dusek, 1985; Rogenberg, 1965; Young, 1993, 박영애,정옥분, 1996 -재인용)이 보여준 불일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기질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발달에 기여하는 변인이다(최영희, 2004).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부모의 통제적 또는 방임적 양육을 불러오기도 한다(문혁준, 2000). 아동의 기질이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이나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보고한 Cutrona와 Troutman(1986)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행동과 달리 어머니의 우울이나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아동의 기질간의 관련성을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양육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Coleman & Karraker, 1997; Dumka *et al.*, 1996;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을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자존감이 어머니의 거부 · 제재나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보다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과 더 높은 의미있는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의 경우 다른 양육행동과 달리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없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높은 자존감과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양육효능감 발달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아동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된 변량으로 인한 결과 해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동과 어머니를 쌍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 영역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 그리고 제한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양육효능감을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차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 뿐 아니라 장애아, 자폐아, 비행아,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에게 발달 상황에 적절한 각각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측정 방법을 사용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 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박영애, 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321-340.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 숙,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2.

진현희(1994).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와 정서적 아동학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보가,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Ⅰ).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3.

최영희(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규해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조건 모델에 근거하여. **아동학회지, 25(4)**, 17-32.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Anderson, M., & Hughes, H. M.(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y, 150*, 463-465.

Ardelt, M., & Eccles,J. S.(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 (197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Brookman-Frazee, L. (2004). Using parent/clinician partnerships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6(4),* 195-213.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usulting Psychologists Press.

Cri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Cri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M.,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Dempsey, L., & Dunst, C. J. (2004). Helping styles and parent empowerment in families with a young child with s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9(10),* 40-51.

Desjardin, J.L. (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Donovan,, W. L., & Leavitt, L. A. (1985). Simulating conditions of learned helplessness: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and at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6,* 594-603.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Eccles, J., & Harold, R.(1996). Parent-school involve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 *Teachers College Record,* 94, 568-587.

Eiden, L. D., Teti, D. M., & Corns, K. M.(1995). Ma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Elder, G., Eccles, J., Ardelt,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37-46.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Gross, D., Fogg, L., & Tuker, S. (1995). The efficacy of parent training for promoting positive parent-toddler relationship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8,* 489-499.

Hoover-Dempsey, K., Bassler, O., & Brissie, J.(1992). Explorations in parent-schoo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Review, 85,* 287-294.

Hoover-Dempsey, K., & Sandler, H.(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 3-42.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97-175.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 (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Leerkes, E. M., & Cro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Litovsky, V. G., & Dusek, J. B.(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4*, 373-388.

Machida, S., Talyor, A. R., & Kim, J.(2002) The role of maternal belifs in predicitng home learning activities in Head Start families. *Family Relations, 51(2)*, 176-184.

Martin. A. J., & Sanders, M. S.(2003). Balancing work and family: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work-site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ume, 8(4)*, 161-169.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Mussem, P. H., Conger, J. J., & Kagan, J.(198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5th). New York :Harper & Row.

Rog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ceton University Press.

Rog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Suchman, N.E., & Luthar, S. S.(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d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Unger, D. G., & Wandersman, L. P.(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Webster-Stratton, C.(2000). *The incredible years training series*.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ne, 2000.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a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64-575.

Young, M. H.(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2006년 7월 31일 접수, 2006년 10월 18일 채택)